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6. 1.(월) 조간 < 5. 29.(금) 14:00 >

부산중기청, '스마트제조 AX 협의체' 전격 출범

- 5.29(금) 부산TP에서 출범식 및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 간담회 개최
-'부산지역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본격 가동

부산지역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엄궁단지)에서 『부산지역 스마트제조 AX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 전통 제조업 기반이 두터운 지역으로 제조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부산지역은 2025년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이 2,166개사로 전국 38,611개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고도화 단계는 539개사, 기초 단계는 1,627개사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지역 공급기업은 총 176개사로 정보화 분야 기업 비중이 가장 높고 자동화, 지능화, 연결화 분야 기업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3.0' 정책 기조에 맞춰 출범한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솔루션 보급을 넘어 부산 제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주기 밀착형 AX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날 출범식에는 유관기관과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부산중기청과 부산TP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9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스마트제조기술기업 부산지역협의회(회장 오준철)가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었다.

1부 출범식에서는 협의체의 출범 선언과 함께 부산TP에서 '2026년 부산지역 스마트제조 생태계 활성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수요·공급기업 비즈니스 매칭데이 △AX우수사례 공모전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AX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포함되었다.

2부 간담회에서는 이청일 부산중기청장 주재로 스마트제조 수요·공급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제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지역 주력산업(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기계금속 업종)에 특화된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부산은 제조업 사업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제조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AI 도입을 통한 공정혁신의 필요성이 크다"며, "AX협의체를 통해 지역 공급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수요기업의 현장 과제를 맞춤형으로 연결해 부산이 스마트제조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스마트제조 AX 협의체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수요·공급기업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AX 전환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책임자	과 장	김길상 (055-601-5140)
		담당자	사무관	임종복 (055-601-51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